

#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불붙는 은행권 수신 경쟁

## 파킹통장 금리 경쟁 확대...대기자금 유치전 저축은행 4%대 속속 진입·사은이벤트 '맞붙'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 되자 은행들이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금리를 높이는 등 수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연 4%대에 속속 진입하는 등 연일 금리가 오름세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 만

기) 가중평균 금리는 연 3.04%로, 작년 1월(3.06%) 이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달(2.93%)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0.11%p가 오른 것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신한은행의 최고 금리가 3.00%로 가장 높

았고 NH농협은행 2.95%,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2.90% 순이었다.

광주은행의 경우 연 3.64%까지 정기예금 금리를 올렸다.

중동전장 증전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되면서 '머니무브'가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경쟁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대기자금 확보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맞춰 더욱 높은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

리는 연 3.55%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연 3.60%)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지역 저축은행 중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더블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으로 연 4.15% 상품을 판매 중이고, 바로저축은행이 4.05%로 뒤를 이었다. 그 외의 상당수 저축은행들도 4% 이상의 금리를 내걸고 있다.

또 은행권에서는 수신 방어책으로 저금리를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 일반 수신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단기 자

금융 통장인 파킹통장도 주목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매일이자Wa파킹통장'의 기본 금리를 연 2.50%로 올리고, 최대 2.6%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적용 시 3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5.10%의 금리 혜택을 준다.

케이뱅크는 지난 11일부터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에 0.3%p의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케이뱅크 앱 내에서 금리쿠폰 받기를 선택하면 30일동안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연 2.5%p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들도 파킹통장 유치전에 가세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파킹통장 상품에 적용하는 우대금리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우대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의 금리 혜택을 준다. 고려저축은행도 지난달부터 파킹통장에 적용하던 기본 금리를 0.5%p 높여 최대(우대금리 포함) 연 3.1%를 지급하고 있다. 다올저축은행은 파킹통장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근 주유권 지급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코스피, '사상 최고' 8864.24 17일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8800선을 회복했다. 137.64p(1.58%) 오른 8864.24로 증가 기준 지난 2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8801.49)를 경신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50만원을 처음 돌파하며 252만1000원에 마감했다.

## 광주은행, 파킹통장 최고 5.10% 금리 우대 기본금리 인상에 신규고객 2.60%p 추가 혜택

광주은행이 수신 입출금 가능한 파킹통장 상품의 기본 금리를 인상하고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증시로 자금이 풀리는 머니무브에 대응하고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선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인 '매일이자Wa파킹통장'의 기본 금리를 연 2.50%로 올리고, 11월 30일까지 신규 가입고객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일로부터 2개월 동안 일별 최종 잔액 3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2.60%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하면 30만원 이하 예치금에 대해 최고 연 5.10% (세전·16일 기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형한 하루 단위로 발생한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입일 직전 1개월 동안 광주은행 입출금 자유예금 계좌를 보유한 이력이 없는 개인 고객이다.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영업점과 스마트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박태호 광주은행 부행장은 "고객들이 여유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 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건설 테마주 급등에 서산·강동씨앤엘 상한가

### SOC 투자 확대 기대감...관련 중소형주 변동성 확대

SOC 투자 확대 기대감에 건설 테마주 가운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관련 상장사 주가가 들쭉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산은 전장 대비 30.00% 오른 370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서산은 지난 10일 1272원(29.93% ↑), 11일 1300원(2.20% ↑), 12일 1690원(30.0% ↑), 15일 2195원(29.88% ↑), 16일 2850원(29.84% ↑)으로 이날까지 6거래일 중 5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며 테마성 매수세가 극대화됐다.

중동전 증전에 따른 재건사업 호재에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등 SOC 투자 확대 기대감이 겹치면서 건설·소재 관련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서산은 콘크리트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현재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와 에너지솔

루션 2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며,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레미콘 및 2차 제품을, 에너지솔루션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다.

시멘트 기업인 강동씨앤엘 역시 이 호재에 수혜를 입었다.

강동씨앤엘은 800만9202주가 거래되며 1430원까지 올라 가격제한폭인 30.00% 상승을 기록했다.

전남 장성에 위치한 강동씨앤엘은 시멘트, 레미콘, 2차제품, 아스콘, 골재, 혼합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사라지는 은행 점포, 지역경제 '창업 절벽'

### 광주 등 광역시, 점포 감소 충격 전남 시·군의 3배

은행 점포 1개가 사라지면, 그 지역에 새로 생기는 기업 수는 줄고 망하는 기업 수는 늘어난다.

산업연구원(KIET)이 16일 발표한 '지역경제에서 금융의 생산적 역할: 은행 점포 변화와 기업 생멸 동학을 중심으로' (박민성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 시군구에서 은행 점포가 1개 늘어난 때 그해 새로 생기는 기업은 약 29~31개 증가하고, 문을 닫는 기업은 약 33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점포가 단순한 입출금 창구가 아니라 지역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보여준다.

박민성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161개 시군구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점포 수 자료와 통계청의 기업 생멸(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것) 통계가 활용됐다. 그 결과 점포 수와 새로 생기는 기업 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점포 수와 망하는 기업 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광주·전남이 속한 호남권에서도 점포 수와 새로 생기는 기업 수가 거의 같은 모양으로 함께 움직이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호남권의 은행 점포 수는 2016년 371개에서 2020년 잠시 회복했다가 2024년 315개까지 줄었는데, 같은 기간 새로 생기는 기업 수도 약 5만 개에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

실제로 최근 광주·전남의 창업·폐업 통계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국가데이

터치(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전남의 신생기업은 2만2403개로 전년보다 850개(3.8%) 줄었고, 같은 기간 소멸기업은 1만9962개로 340개(1.7%) 늘었다. 전남의 신생기업도 2만9784개로 전년보다 801개(2.7%) 줄어드는 등 광주·전남 모두 창업 활력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하반기 7702개에서 2025년 하반기 5513개로 13년 만에 약 28% 줄었다. 모바일·인터넷 뱅킹 확산과 은행 간 합병에 따른 점포 통합이 주요 원인이다. 광주처럼 광역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런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특별시는 최근 9년 사이 점포가 24% 줄고 신생 기업의 비율도 27% 떨어졌는데, 이는 전남처럼 도(道) 산하 시·군에 비해 약 3배나 큰 충격이다. 연구원은 도시 중심부의 창업·자영업 생태계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흥미로운 예외도 있었다. 전북권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점포 수가 2016년 154개에서 2024년 170개로 오히려 10% 늘었는데, 같은 기간 새로 생긴 기업 수도 함께 증가했다. 점포가 늘면 창업도 늘어난다는 원리가 확인된 것이다.

연구원은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된 요즘에도 은행 직원이 직접 만나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점포가 빠르게 사라지는 지역에는 찾아가는 이동식 점포를 늘리거나, 지방은행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태은 기자 nab@gjdre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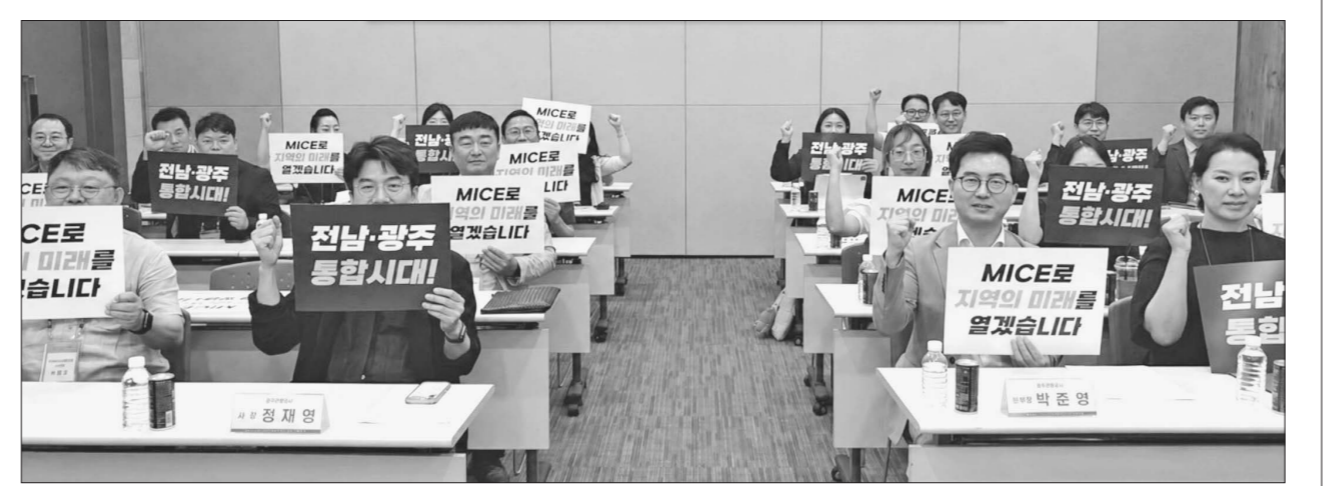
## 광주 MICE 얼라이언스, 통합특별시 시대 산업 성장 결의

### 회원사 총회·운영위원회 출범 MICE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관광공사는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광주 MICE 얼라이언스(GMA) 회원사 총회 및 운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아 지역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의 역할 강화를 다짐했다.

광주 MICE 얼라이언스는 호텔, 여행사, PCO, 유니크베뉴, 문화관광시설 등 지역 MICE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63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공동 마케팅과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광주 MICE 산업 발전에 힘을 모아오고 있다.

최근 MICE 산업은 국제회의와 전시회,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등을 통해 관광·숙박·식음·교통·문화예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며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관광공사는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광주 MICE 얼라이언스(GMA) 회원사 총회 및 운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으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의 컨벤션 인프라와 전남의 풍부한 관광·문화·자연자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광주 MICE 얼라이언스는 통합 시대에 발맞춰 광역 MICE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MICE 콘텐츠 개발과 공동 유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회원사 간 협력 확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사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어반브룩(주) 신윤지 대표가, 부회장에는 ㈜라인플래너스 라형심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운영위원회는 향후 회원사 간 협력사

업 발굴, 공동마케팅 추진, 정책 제안 등 광주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재영 사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MICE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주 MICE 얼라이언스가 지역사회의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